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3. 31(금)	
		작성문의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장 심종섭 (Tel. 044-200-2048) 사무관 심정환 (Tel. 044-200-2049)
<p>* 엠바고 : 3.31(금) 16:30(회의종료) 이후 사용</p>			

정부, 국정공백 방지를 위해 대선까지 정상적인 국정관리 기조 유지

- 이석준 국무조정실장, 감사관회의(24일)에 이어 중앙부처 기조실장 회의 소집
 - 엄정한 공직기강을 토대로 정상적인 업무 추진, 리스크 요인 적기대응
 - 공정한 대통령 선거관리 지원, 차기 정부 인수인계 준비에도 만전
- 정부는 3월 31일(금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대선까지의 업무관리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, 대통령 선거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.
- 중앙부처 기조실장들은 대선전까지 국정이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수인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,
- 국정 공백이 없도록 민생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북한도발, 구조조정, 대외 통상현안 등 우리 경제사회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하고, 갈등 현안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- 이를 위해, 대선정국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자세를 차단하고 업무 해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.

- **공정한 대선관리를**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선거지원에 필요한 업무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특히, **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**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인 만큼,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**무관용 원칙**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.

- **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** 차기 정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**마지막까지 공직자들이 흐트러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**해야 한다고 강조하고,
 - 주요 현안에 대해 각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불안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, **부처간 협의를 강화**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